

예후와 트럼프 [세계 정치와 하나님 (6)]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

[열왕기상 19:15-17]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열왕기하 9:1-3] 대언자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를 손에 가지고 라뭏길르앗으로 가라. 네가 거기에 이르거든 거기서 남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일어나게 한 뒤 그를 데리고 안에 있는 방으로 가서, 그 뒤에 기름 상자를 취해 그의 머리에 그것을 부으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라, 하고 그 뒤에 문을 열고 도망하며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

1. 이스라엘을 정화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기원전 841 년, 지금부터 2861 년전에 북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부패한 아합 왕의 집안을 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했던 대언자들과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원수 갚음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뉴저지주의 웨인에 있는 예루살렘 센터의 목회자인 메시아닉 유대인 조나단 칸 [Jonathan Cahn] 랍비는 그의 유명한 저서중 하나인 "The Paradigm"에서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3 천년이 지난 현세의 예후 왕으로 비견하여 미국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주의를 끌어 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글에서 카안 랍비의 성경적 풀이를 살펴봄으로써 과연 미국의 정치판에 갑자기 나타난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위기의 미국을 구하기 위하여 세우신 현세의 예후 왕인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에 수록한 열왕기상 19 장 15-17 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의에 빠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목회 일터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 3 가지를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시리아의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부어 세우라는 것이고, 둘째는 남시의 손자 예후를 기름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고, 셋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하여 자신의 목회를 이어 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은 수행하지 않고 오직 엘리사를 택하여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되게 하는 일만 하고 승천하였습니다.

사실 처음 두 명령은 대언자 엘리야에게 매우 거북스럽고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두가지 명령 모두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장군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왕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하는 혁명을 수행하고 왕위에 오르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회자나 대언자가 한국의 현역 장군에게 비밀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차기 한국의 지도자로 지명하셨으니 일어나 혁명을 수행하시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연유로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 두 가지 숙제를 남기고 승천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 이 두 명령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들어 왕의 심복인 하사엘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문의하게 하였을 때에 [열왕기하 8 장],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받게 하지 않았고, 다만 그의 미래에 대한 좋지 못한 비전을 말하면서 그의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인치는 일도 엘리사는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제자중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어려운 일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제자는 엘리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이 과제를 수행하여 이 사실을 알게된 다른 장군들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되고 혁명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후의 혁명군은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다른 아들들 70 명을 모두 죽이고 [열하 9-10 장], 또한 그들의 사악한 모친 이세벨 역시 내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열하 9 장]. 예후의 군대는 나아가서 아합의 나머지 친족들도 죽이고, 바알 신을 섬기는 숭배자들을 속임수로 모두 모이게 하여 그들을 죽이는 일도 수행함으로써 아합 일가과 그들이 이스라엘에 끼친 정치적, 종교적 오염을 모두 제거하는 혁명과 개혁을 온전히 수행하였습니다.

2. 혁명적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종들인 엘리야와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정화 계획을 수행할 혁명군 대장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배를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 따르기를 매우 싫어하여 스스로 도덕적으로 퇴폐하게 되는 일을 하였고, 백성들도 이러한 종교적, 도덕적 부패의 길에 빠지도록 술선수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혁명적 인물들을 선정하고 그들을 도와서 세상을 개혁하는 계획을 수행하신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대홍수를 견딜 큰 배를 만드시게 하시어 인류의 씨를 보존하셨고,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 왕에게 항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명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모두 죽이거나 정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수립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있던 이방 족속들과 싸워 부분적으로나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빌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유대 왕국을 침공하여 멸망시킴으로써 폐퇴한 이스라엘 민족을 별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후 서기 70 년에는 로마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전멸시킴으로써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 5:44]”고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기독교의 초기에 신자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독립 운동을 한다고 로마군에 맞서서 싸웠더라면 과연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 6:33]”의 올바른 실천이 되었을까요? 당시의 사도들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그 당시의 지배자들에게 순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1]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디도서 3:1]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위와 정부에 순응하고 법을 지키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여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세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마귀를 추종하고, 백성들을 그러한 사악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도층을 바꿔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잘못된 지도층의 리더십에 분별 없이 순응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혁명 지도자는 3천년 전의 예후 장군과 그의 혁명군이 한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가르치심에 힘입어 악한 세력에 분연히 맞서서 그들을 궤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정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혁명적 사명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세대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시는 방법이요, 선택이지 인간이 계획하고 택하는 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도 순응하고 “아멘” 하면서 지존자의 엄중한 뜻을 다만 받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6 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기 전에도 잘못된 교회에 반기를 들었던 신앙의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 발덴시안 파의 창시자 발데스, 잔 후스, 그리고 존 와이클iffe 같은 분들이 용감히 부패한 천주교의 교황권에 반대 의견을 폈었고 그들은 혹독히 핍박 받았습니다. 16 세기에 화란 롯데르담의 에라스무스는 위대한 인본주의 학자이었으며, 천주교가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온갖 미신들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하였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따라야 할 도덕적 모범과 교사이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그는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사본들을 종합하여 권위있는 사본을 집대성 함으로써 와이클iffe의 최초 영어 성경과 영국 교회가 주관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번역을 위한 중요한 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와 신학 교수이었던 마틴 루터가 1517 년 10 월 31 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성당 문에 95 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본격적 종교 개혁의 거포를 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분들이 모두 교회에 순응만 하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길이 열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천주교의 굴레에 묶여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평생 교회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해서 안절부절 하다가 불쌍하게 죽는 어둠의 신앙, 심히 부패한 교회, 그리고 사탄에 의해 조종받는 기독교 세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전도하며, 인간답게 사는 자유를 누리며, 구원의 참된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3천년 전에도 예후를 세워 이스라엘 나라에 혁명을 실행하여 왕실을 뒤엎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고, 땅에 떨어진 도덕 수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한 사례와 같이 21 세기를 사는 현세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단적인 수단과 계획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개혁을 하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21 세기의 예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현재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3. 21 세기의 예후, 트럼프 대통령

그의 베스트 셀러 저서 “The Paradigm”에서 조나단 칸 랍비는 21 세기 미국의 최정상 지도급 인사 네명을 3 천년 전의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네명의 인물에 대등시키면서, 3 천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똑 같이 발생하고 있음을 성경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칸의 주요 논리 전개를 따르면서 칸의 3 천년의 시간 간격을 넘어선 분석과 예언에 대한 놀라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지도층 네명은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된 요람 왕, 그리고 혁명을 일으킨 예후 왕입니다. 오랜 역사의 간극을 넘어서 이들과 대비되는 21 세기 미국의 지도자들은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클린턴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 오바마, 그리고 혁명적으로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그들입니다. 이러한 인물 대등화를 정당화 하는 역사적 사실로서 그들이 권좌에 있었던 기간들과 행동들이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목을 끌고 남습니다:

- 1) 빌 클린턴이 아칸소 주의 법무 장관을 거쳐, 주지사가 되고, 이어서 대통령이 됨으로써 도합 42 년간 권좌에 있었는데, 이 기간은 아합 왕이 권좌에 42 년간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
- 2) 아합 왕과 이세벨이 신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그를 부하를 시켜서 죽이고 그 땅을 뺏은 일이 아합의 가문이 모두 멸하기까지 추문이 된 것과 같이, 클린턴 부부는 미국 동부의 오자크 산맥의 화이트 강 근방에 있는 200 에이커의 땅을 화이트워터 개발 회사를 통해 획득했는데, 이 땅의 법적 관리인이었던 빈스 포스터는 의문사로 죽었다. 그를 제거해야 그 땅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아합 왕이 “자신을 팔아서 주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한 것 [열상 21:25]” 같이 클린턴도 기독교 신앙을 폄박하는 정책을 펴고, 낙태를 연방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자신의 성 도덕 퇴락 행위를 백악관에서 하다가 들킴으로써 온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도덕성 타락에 앞장섰다.
- 4) 요람 왕은 12 년간 왕위에 있었고, 버락 오바마 역시 상원의원과 대통령으로서 12 년간 권좌를 누렸다.
- 5) 요람 왕은 아합 왕의 바알 숭배 정책을 이어 받아 이를 지속 수행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미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린턴을 승계한 오바마도 하나님의 원칙과 진리를 방해하고 악의 세력이 미국 사회에 확산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동성애자의 결혼을 승인하는 정책을 대법원까지 승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판결이 나던 날 밤에 백악관을 성소수자들이 심벌로 삼고 있는 무지개 조명을 비추게 한 일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한 최악이었다.
- 6) 이세벨이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기간은 36 년이었고, 힐러리가 주지사 부인이 된 이후부터 36 년간 미국의 권좌를 향유하였다.
- 7) 이세벨의 권세를 누린 기간은 첫 부분은 남편인 아합의 부인으로서 22 년을 지냈고, 그리고 후반에는 혼자서 남편이 없이 14 년간 권좌를 누렸다. 유사하게 힐러리도 먼저 남편 클린턴의 영부인으로서 22 년을 보냈고, 후반에는 독립적으로 상원의원으로, 국무 장관으로,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도합 14 년간 권력을 누렸다.

- 8) 이세벨은 어린 아이들을 바알 신에게 희생하는 참혹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후원하였다. 마찬가지로 힐러리도 자기 남편의 대통령 임기 중, 그리고 상원의원으로서 낙태 프로그램을 적극 찬성할 뿐 아니라 연방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밀었다. 그리하여 수백만의 태어나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치성이 많지만 이 정도만 보아도 우리는 칸 랍비의 분석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후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어떠한 일치성이 있는지 다음에 요약합니다.

- 1) 예후는 하나님의 종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전혀 정치적 경험이 없었다. 트럼프 역시 오바마 임기 후반인 2015년 6월 16일에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전혀 정치적 경험이 없었던 인물이었다.
- 2) 예후가 대언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미국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 안수받고 그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였고 그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 3) 예후가 이스라엘의 정치 세계에 전혀 예고 없이 돌입하여 지체 없이 요람 왕에게 공격의 화살을 겨누기 시작한 것처럼 트럼프도 대통령 후보로 선언한 즉시 오바마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 4)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나답과의 연합으로 혁명을 성공시킨 것처럼 트럼프와 독실한 보수 기독교인 마이크 펜스의 팀은 미국의 개신교 성도들의 대폭적 지원을 힘입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 5) 예후가 전투적인 지도자이었던 것처럼 트럼프 역시 민주당과 좌파 언론, 그리고 그들의 배경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는 뒷스테이트에 대하여 매우 전투적인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 왔다.
- 6) 예후가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었어도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혁명군 참가로 인하여 왕궁을 점유하게 된 것처럼 트럼프 역시 사전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이 성공적인 선거전을 치르고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제 45대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성공적으로 입성하였다.
- 7) 예후가 정치적 부패와 종교적 폐퇴 상태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처럼 트럼프 역시 부패한 정치 구조, 취약한 국제 경제 체제, 신앙적 자유에 대한 억압과 기독교적 가치관의 퇴락을 개혁하고자 하는 소위 "Drain the Swamp [썩은 늪의 물을 빼자]"는 모토를 내어 걸고 노력하고 있다.
- 8) 예후의 혁명이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으로 종료된 것처럼, 트럼프의 개혁은 힐러리 클린턴의 정치적, 개인적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칸의 예언이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두번이나 이혼한 억만장자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 특히 젊은 층이 존경하고 표를 던질만한 대통령 후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준 이유는 다음 두가지 이었습니다.

첫째로, 트럼프가 착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회개하고 참된 신앙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고, 개신교 지도자 목회자들이 일심동체로 트럼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찾아가 그의 신앙적 자세와 사람됨을 확인하고, 그를 둘러서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실이었습니다.

둘째로, 트럼프가 바람직한 후보가 아니었고 정치적 완속함이 없어도 썩은 미국 정치판을 물갈이 하겠다는 그의 선거 플랫폼은 미국 유권자들의 가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힐러리 클린턴은 Swamp 로 표현되는 썩은 물의 챔피언이었지만, 정치에 물들지 않고, 이미 억만장자이어서 돈의 유혹이 없는 이 거칠게 말하며 트윗터를 애용하는 직선적인 인물은 서민을 대변할 투사로 비쳤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인 개신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수백군데 교회에서 트럼프 후보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을 때에 부끄럽게도 우리 한인 교회들에서는 국가가 처한 위기와 하나님의 왕국이 처한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특히 목회자들이 깨어서 정치적 상황을 바로 보고 신도들에게 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제 2020 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인 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전력 투구해 온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 동참하면서 그의 재선과 국가 통치 노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과 천사들의 동참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만일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거에 클린턴과 오바마가 취했던 우유부단한 대북 및 대중 정책이 다시 채택될 것이 분명하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의 한 변방이 되고 김정일-김여정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나라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한인 교포들은 힘을 합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4. 북한과 한국의 예후

지금까지 우리는 21 세기 미국의 예후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한국에서는 예후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일인 독재 국가이었던 루마니아에서는 1989 년에 민중 봉기가 발생했는데 이를 군부가 뒷받침하여 차우체스크를 체포하고 재판에 세워 그해 크리스마스 날에 그 일가를 모두 총살함으로써 42 년간의 일인 독재가 종식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945 년 이후 무려 75 년간의 김씨 일가 독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부족하거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영똥한 기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 두가지가 모두 원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종료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북한의 군부에서 예후같은 장군이 일어나 김씨 일가를 모두 대청소하고 나라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예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기에 맞지 않는, 이미 토론이 끝난 사회주의 사상으로 붉게 물든 친북, 친공 정권이 사회 각계층을 차지하고 앉아 지난 총선 투표 과정과 결과도 조작함으로써 개혁을 위한 국회 의원수를 충분 이상의 수준으로 확보하여 이제 그들은 우리 해방 세대가 땀을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부강한 국가를 김정은과 시진핑의 무릎 앞에 바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고, 창의적인 경제 산업 활동을 위축하여 경제를 파괴하며, 지난 70 년간 한반도 안보를 지켜온 한미 동맹을 파괴하여 민족 자존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려는 이 어리석은 집단의 행보를 막을 예후가 출현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후의 출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예후를 찾아서 인치고 안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위기를 굽어 살피셔서 나라를 구하고 개혁할 예후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